

우리들의 모습



12월 14일(주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예비신학생 종강미사가 있었습니다. 17명의 예비신학생과 부모님, 신학생들이 모여 2025년 예비신학생 모임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3명의 예비신학생들이 개근상을 받았고, 2명의 신학교 입학예정자들이 합격 축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예비신학생들을 위해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신 종강미사

예비신학생 기본 교리

교회? 성당?

'교회'하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 성당? 우리 동네 예배당?

'교회'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 그리고 이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입니다.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은 참 다양해요. 남녀노소, 다양한 직업과 신분, 특히 요즘은 여러 외국인들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 하느님께 기도하며 미사를 드리지요. 그것은 이들을 모두 하나로 묶어 주는 '하느님께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건물을 의미하는 말로는 '성당'이라고 더 자주 부르지요. 예신생 친구들은 여러 성당에 가봤지요? 성당 모양과 크기도 각각 다르지요. 유리창 장식이 아름다운 성당이 있고, 십자가 크기와 모양도 다르지요.

그리고 오래된 성당에는 높은 종탑이 있기도 해요. 요즘에는 거의 종은 치지 않지만, 과거에는 기도 시간이나 미사 시간에 종을 쳐서 알려주기도 했어요. 유럽에서는 아직도 시간에 맞춰 종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탑에 커다란 시계가 함께 걸려 있기도 하지요. 시계가 없던 옛날에는 성당 종소리가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또 성당의 특별한 날, 예를 들어 결혼식, 장례식, 부활절, 성탄절 등에 따라 종소리를 다르게 해서 이날이 무슨 날인지, 성당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예신생 친구들은 이제 교회와 성당을 구분하겠지요? 교회는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성당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물입니다.

2026년 1월

예비신학생 편지



< 2025년 예비신학생 종강미사 >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1월 2일 그레고리오
대 신 학생 - 김정수 (송현동, 부제)
- 1월 2일 바실리오
대 신 학생 - 김윤성 (주교좌 목성동, 군복무)
- 1월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대 신 학생 - 손동일 (점촌동, 학부1)
예비신학생 - 권혁원(봉화, 고3)
예비신학생 - 이우철(영양, 중2)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우리 모두에게 평화를! -

새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는 '세계 평화의 날'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건네신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는 갈라진 세상에 다시금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간절한 기원이자,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격려다.

레오 14세 교황님은 이렇게 묻는다. 참된 평화는 무기의 균형이 아니라 신뢰와 대화,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고 있지 않은가? 불행하게도 오늘날 세상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의 참상이 펼쳐지고, 군비 증강은 마치 불가피한 선택처럼 합리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평화는 허황한 이상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여전히 분단의 비극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다. 한반도의 평화는 여전히 가시밭길이며, 긴장과 서로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고 평화는 더욱 멀어 보인다.

하지만 교황이 분명히 말하듯, 평화는 우리가 걸어 가야 할 여정이다. 말과 생각에서부터 무장을 해제하고, 상대를 적이 아닌 대화의 상대로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이 필요하다. 평화를 전하려면 우리 안에 먼저 평화가 불타올라야 한다. 올 한 해, "평화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신학생으로부터~



예비신학생 친구들, 안녕!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고 2026년이 되었어요. 저는 요즘 신학교를 잠시 떠나서 군대에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디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새로운 학급, 새로운 학교, 새로운 미래, 새로운 사람들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겠죠? 아마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할 거예요. '시작'이라는 건 늘 그런 법이니까요.

무언가가 끝난 후에는 언제나 또 다른 시작이 찾아와요.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에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신학교에 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지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내고 나면, 기쁨과 보람뿐만 아니라, 다음에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고민하고 기대하는 시간도 함께 찾아와요.

우리 예비신학생 친구들에게도 수많은 시작과 끝이 있었을 거예요. 그 기억들은 우리 친구들이 언제 어디로 떠나든지 '지금처럼 잘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곤 해요. 친구들의 지난 삶 속에서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욱 힘이 되겠죠?

신학생들은 신학교를 '못자리'라고 불러요. 못자리는 논에 심기기 전에 범씨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지내온 시간, 하느님과 함께 걸어온 기억이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친구들에게 못자리가 되어줄 거예요.

언제나 기쁘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군대에서도 기도하고 있을게요. 다음에 만나요!

기억해요!

1. 2026년 부제서품식

- 일 시 : 1월 11일(주일) 15:00
- 장 소 : 주교좌 목성동 성당
- 부제품대상자



김정수 그레고리오
송현동성당



이민우 테오필로
봉화성당

- 서품자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예비신학생 겨울 캠프

- 일 자 : 1월 24일(토) - 25일(주일)
- 장 소 : 우곡성지 및 분천 산타마을

3. 2026년 예비신학생 등록

- 대 상 : 사제 성소를 꿈꾸는 중고등부 남학생 (중1~고3)과 청년
- 방 법 : 등록카드 작성 후 부모님 동의와 본당 신부님 추천을 받아 사목국으로 우편 접수
- 회 비 : 1인 50,000원(1년)
- 2025년에 등록한 예비신학생도 새로 등록카드를 작성하여 등록해주세요!